NH투자증권

NH Morning Meeting Brief

주식전략/경제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전략		김영환/안기태/권아민
NH Digital Asset Weekly	미국 SEC발 규제 리스크 고조	홍성욱

산업/기업분석

바이오산업 (Positive유지)	ASCO: 완벽한 메인, ADC	박병국
한미약품/Spot Comment	듀얼 아고니스트 압도적인 지방간 감소율 확인	박병국
엔터테인먼트산업 (Positive유지)	또 레벨업	이화정
하이브 (Buy유지/TP:370,000원유지)	계속 달릴 수 있어 더	
JYP Ent. (Buy유지/TP:160,000원상향)	큰 파도가 시작될 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Buy유지/TP:105,000원상향)	컴백이 아냐, 떠난 적 없으니까	
에스엠 (Buy유지/TP:120,000원하향)	작은 소란을 또 일으켜	
현대이지웰 (Not Rated)	올해 역대급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	백준기

NH Morning Meeting Brief는 당사 Research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상 투자의견이 제시된 기업 중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NH투자증권은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주식전략/경제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전략

김영환/안기태/권아민 (02-768-7677)

원문보기

- **주식시장 Preview: 5월 CPI, FOMC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전망**
  - KOSPI 주간예상: 2,540~2,660P
  - **상승 요인:** 미국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안정 전망, 6월 FOMC 금리인상 우려 완화
  - **하락 요인:** 미국 실물경기 둔화 우려, 미국 국채 발행 증가 우려
  - **미국 5월 소비자물가 발표 & FOMC:** 6/13 미국 5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 헤드라인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2%(전월 +4.9%, y-y). 근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5.2%(전월 +5.5%, y-y). 클리블랜드 연은의 Inflation Nowcast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13%,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27%로 예상. 헤드라인 물가는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이 매우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이기는 하나, 5월 수치가 예상대로 발표된다면 근원 물가상승률도 기준금리 상단(5.25%)보다는 낮아지게 됨
  - 한국 시간 6/15 새벽 FOMC 금리결정 예정. CME Fedwatch에 따르면 금리동결 확률은 74%, 25bp 금리인상 확률은 26%(6/9 기준).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후 금리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연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기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
  - 미국 헤드라인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 소비자물가 또한 기준금리 상단보다 낮아질 전망이라는 점에서 하반기에 실제로 연준이 금리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
  - **미국 경기둔화 우려:** 6/15 미국 5월 소매판매·산업생산 발표 예정. 소매판매 증가율 전망치는 +0.0%(전월 +0.4%, m-m), 산업생산 증가율 전망치는 +0.1%(전월 +0.5%, m-m).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가·임금 상승률 둔화는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 하지만 연내 연준의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격지표 안정이 실물경기 둔화로 연결되면 금융시장은 재차 경기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목할 가능성
  - **미국 국채 발행 증가 우려:** 5월 말 기준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예치한 당좌 예금은 500억 달러 미만.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재무부 관리들은 세수와 지출, 부채 관리 등을 위해 일반 계정을 6,0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려 하고 있음. 국채 발행량 증가가 여타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할 우려
  - **투자전략:** 다음주(6/12~16) 메인 이벤트인 5월 CPI 발표, FOMC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전망. 한편, 경기와 유동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 주가지수는 다소 높은 변동성을 수반한 우상향 흐름을 예상. 주식 선택에 있어서는 경기 영향을 적게 받는 성장 테마에 집중할 것을 권고
  - **밸류에이션:**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12.8배(2005년 이후 분포의 상위 6%), 12개월 후행 PER은 14.9배(2005년 이후 분포의 상위 12%), 12개월 선행 PBR은 0.96배(2005년 이후 분포의 상위 70%), 12개월 후행 PBR은 1.00배(2005년 이후 분포의 상위 76%)
  - **관심 업종:** 반도체, 헬스케어, 조선, 인터넷, 풍력/원전, 방산/우주항공
  - **주간 주요 이벤트(한국시간):** 미국 5월 소비자물가(6/13), 미국 5월 생산자물가(6/14), 6월 FOMC(6/15), 중국 5월 산업생산·소매판매(6/15), 6월 ECB 통화정책회의(6/15), 미국 5월 소매판매(6/15), 미국 5월 산업생산(6/15)

- **경제 Preview: 숫자를 바꾸는 FOMC**
  - 3월 FOMC에서 연준은 올해 4분기 성장률 전년대비 0.4%, 실업률 4.5%, 물가 상승률 3.3%를 제시했음
  - 3월에 해당 숫자를 제시할 때에는 작년 4분기 경제 통계와 3월 초에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의 뱅크런을 기반으로 작성
  - 시간이 지나, 1분기 경제 통계를 보면 전년대비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보다 높아져 있고 3월 FOMC가 열렸을 때 확인된 인플레이션과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다르지 않음(=PCE 인플레이션이 모두 4.7%로 낮아진 것이 없음)
  -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전제를 두고 올해 4분기 숫자를 제시했을 텐데 당시에 본 것과 비교해 현재 성장률은 더 높고 물가 상승률은 같으며 실업률은 올라간 것이 없음
  - 3월 FOMC와 6월 FOMC 사이에 벌어진 일을 요약해 보면,
  - 첫째, 중소형 은행 문제가 시중 유동성 위축 및 경기하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발생했으나 일단 현재로서는 그 위험 수준이 크지 않아 보이며
  - 둘째, 정부부채 한도 이슈가 불확실성을 남겼으나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가 된 상태이며
  - 셋째,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춘 이후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 및 주택시장 지표는 개선됨
  - 6월 FOMC에서는 현실적으로 성장률 상향 조정과 실업률 하향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숫자를 바꾸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는 있으나, 숫자를 바꾸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는 어려움을 뜻하며 7월에 인상 가능성을 남기는 회의가 될 전망

- **FX Preview: Fed 경계 속 '나홀로' 지속될까?**
  - **원/달러 환율 주간 예상 밴드: 1,290원~1,350원**
  - 6일 호주중앙은행(RBA), 7일 캐나다중앙은행(BoC)은 시장 기대와 달리 깜짝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Fed의 추가 긴축에 대한 경계감도 지속. 6월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은 한 달 전 8.5%에서 32% 로 상승(Fed watch). 최근 선진국 통화는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단기금리(2Y) 차이에 의해 좌우. 미국-독일 단기금리 차이와 유로화, 미국-일본 단기금리 차이와 엔화 가치 간 상관계수는 각각 0.93과 0.99에 달함
  - 지난 2주간 한국 원화는 멕시코 페소화와 더불어 주요국 중 통화 강세폭 상위에 랭크. 원화 가치는 반도체 경기 개선 기대로 KOSPI와 외국인 순매수 등 국내 시장지표와 더욱 연동이 강해짐(아래 그림 참조). 중국은 지표가 혼재된 모습인데 5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7.1로 전망치를 상회한 반면 같은 달 수출은 7.5%(y-y) 감소해 두 달만에 하락 전환. 경기 회복 기대 조정에 위안화는 약세지만 위안화-원화 간 상관계수는 약화
  - 최근의 원/달러 환율 흐름에는 연초 이후 유독 컸던 원화 가치 낙폭에 대한 갭메우기 차원도 있다고 판단. 아직 글로벌로 보면 미 Fed의 긴축 경계,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보수적 전망 등이 여전한 만큼 원화만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지속되기는 어려우며 방향성 전환에 보다 시일이 소요될 전망

NH Digital Asset Weekly

홍성욱 (02-768-7657)

미국 SEC발 규제 리스크 고조

원문보기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차례로 제소하며 디지털자산 가격 등락이 컸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반등했으나, BNB 등 SEC가 증권으로 신규 분류한 종목은 크게 하락

- **미국 SEC,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연달아 제소**
  -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연달아 제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증권성 이슈에 집중했다면 바이낸스는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혐의도 제기.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도 금융상품이라고 문제삼고 있으며 10개 주정부 금융당국도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문제 제기
  - 두 거래소에 대해 SEC가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은 예상가능했으나 주요 거래소를 연달아 제소한 점은 시장 변동성을 키움. 코인베이스는 SEC 제소 내용을 반박하고 증권으로 분류된 종목을 상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법적 다툼 예고

- **SEC가 생각하는 증권의 범위는 매우 넓음**
  - 미국 SEC는 현재까지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13개 종목을 증권으로 분류. 추가로 증권으로 분류되는 사례 등장 가능
  -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입장.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의 경우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며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
  - SEC는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으나,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라고 주장

-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에 타격 불가피**
  - 대표 거래소들에 대한 SEC의 소송 제기로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축소해석하자면 금번 이슈는 미국 지역의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에 집중된 이슈.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철수하고 코인베이스 등 미국 거래소들이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종목들을 상폐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 등 일부 사업을 종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음
  - 미국 거래소 사업에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거래소(CEX) 규제가 탈중앙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특히 거래소가 진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더리움 탈중앙성에 기여하지 못하기에 이더리움 재단도 선호하는 방식이 아님

- **증권성 이슈의 다음 단계는?**
  - SEC가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이는 결국 현행법에 의한 규제 활동.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화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져서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 등 신규 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SEC가 강제하고 있는 증권성 기준이 무력화될 수 있음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SEC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공화당 측에서 겐슬러 SEC 의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도 많다는 점, 리플과의 소송도 수년간 답보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SEC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
  - 특히 비트코인은 증권성 이슈로부터 자유로우므로 금번 이슈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산업/기업분석

바이오산업 (Positive유지)

박병국 (02-768-7469)

ASCO: 완벽한 메인, ADC

원문보기

- 올해 ASCO는 ADC(항체약물적합체)가 메인으로 거듭나는 현장이었다. 작년 엔허투의 유방암 성과 이후 여러 고형암으로의 확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신규 항체 발굴로 이어지고 있다. 즉 현존하는 대다수 종양분야 항체는 ADC로의 확장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1)TROP2, MET, 클라우딘, 인테그린 등 유망한 신규 타깃과, 2)병용 및 기존 치료제 대체에서 중요한 안전성도 주목하자. '22년부터 둔화된 항체의약품 성장률이 재도약할 수 있으며 이는 헬스케어 전반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것이다.
- 신약 개발만큼 ctDNA를 통한 동반, 조기진단 분야의 포스터 비중도 높아졌다. 특히 ctDNA 농도와 치료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동반진단에 대한 연구가 늘었다. CT, 조직 생검과 더불어 액체생검이 치료제 효과 분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레고켐바이오, 에이비온, 루닛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최근 1년간 '루닛'의 대표 상장 주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미약품/Spot Comment

박병국 (02-768-7802)

듀얼 아고니스트 압도적인 지방간 감소율 확인

원문보기

- **유럽 간학회 EASL 2023에서 한미약품 초록 공개**
  - 현지시간 6월 7일 유럽 간학회(EASL)에서 한미약품 NASH 치료제 Efinopegdutide(GLP-1/glucagon 듀얼 아고니스트) 임상 2a상 임상 초록 공개. 비교 약물은 노보 노디스크의 Semaglutide(GLP-1)로 지방간 감소 변화 효과 직접 비교 임상. 임상 2a상 무작위 오픈라벨 임상으로, 지방간함량 10% 이상인 환자군을 스크리닝하여 24주간 EFI(10mg x Q1W)와 SEMA (1.0mg x Q1W) 비교 진행. 주평가지표는 24주 치료기간 지방간 감소율이었음. 참고로 임상 참여 환자 수는 총 145명(EFI 72, SEMA 73)이었으며 평균 지방간함량(LFC)은 20.3%
  - 해당 초록에서 한미약품의 EFI는 비교 약물 SEMA 대비 압도적인 지방간 감소율 효과를 보여주었음. 24주차 지방간함량 평균 감소율 EFI 72.7% vs SEMA 42.3%(p-value 〈 0.001), 지방간 감소율 중간값은 EFI 83.8% vs SEMA 44.4%로 큰 차이를 보였음. 또한, 24주차 지방간 감소율 30%, 50%, 70% 초과 환자 비중은 각각 EFI 81.9%, 77.8%, 70.8%, SEMA는 67.1%, 43.8%, 12.3%. 지방간 감소율 효과가 높아질수록 한미약품의 EFI 유효성이 더 부각되는 고무적인 데이터. 또한 24주차 정상 지방간함량(〈5%) 내에 진입한 환자 비중은 EFI 66.7% vs SEMA 17.8%로 큰 차이를 보였음

- **한미약품 영업가치만으로도 여전히 저평가 상황**
  - 신약가치는 MSD, 로슈와 개발 중인 약물 및 레코드 있는 R&D, 사업개발 역량까지 최소 1조원 이상으로 평가 가능. 한미약품의 신약 가치 제외 시 피어 대비 멀티플이 낮으며 CMO 밸류가 반영되었다고 판단 불가. 실적 개선 및 마진률 감안 시 멀티플 할증이 필요
  - MSD의 NASH 듀얼 2a상(vs. 노보 세마글루타이드) 긍정적인 초록 데이터 확인 완료, 향후 1)트리플, 에페글레나타이드, 롤론티스로 신약가치 상향, 2)낮아지는 EV/EBITDA에 주목해야 함

엔터테인먼트산업 (Positive유지)

이화정 (02-768-7535)

또 레벨업

원문보기

- 2023년에도 K팝은 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BTS의 기록을 상회하는 음반 판매량 및 투어 규모 확대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아시아권 팬덤 수요 견조한 가운데, 서구권 팬덤 수요까지 늘어난 결과입니다. 꾸준한 유효시장 확대로 유의미한 외형 성장을 이룬 K팝 산업은, 이제 막 규모의 경제 본격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새로운 구조적 성장기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나 엔터사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K팝 외 장르로 유효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중장기적 성장까지 기대됩니다.

엔터테인먼트업종 투자의견/투자지표 (단위: 원, 배, %, 십억원)

종목명	코드	투자의견	목표주가 (12M)	현재가	PER		PBR		ROE		순차입금	
					2023E	2024F	2023E	2024F	2023E	2024F	2023E	2024F
하이브	352820.KS	Buy(유지)	370,000(유지)	268,000	42.1	38.4	3.1	2.9	8.3	7.8	-988	-1,651
JYP Ent.	035900.KQ	Buy(유지)	160,000(상향)	128,300	28.5	27.6	10.2	7.6	42.6	31.4	-324	-476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2870.KQ	Buy(유지)	105,000(상향)	81,900	27.2	24.1	3.3	2.9	12.9	12.9	-88	-119
에스엠	041510.KQ	Buy(유지)	120,000(하향)	103,400	29.6	21.5	3.3	2.9	11.5	14.4	-533	-639

주: 6월 8일 종가 기준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현대이지웰 (090850.KQ/Not Rated/CP:6,630원)

백준기 (02-768-7066)

올해 역대급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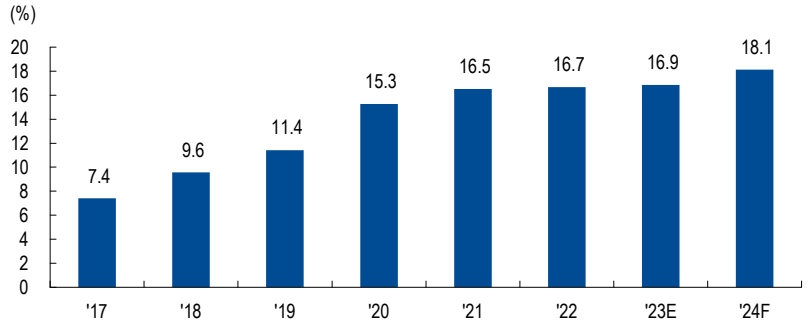
원문보기

동사는 안정성 높은 사업 영위하며 고객 다변화에 성공.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장 지속. 2023년 예상 PER 8.7배로 비즈니스 모델과 역사적 PER 밴드 고려하면 확연한 저평가

- **올해 하반기 실적에 우호적 영향 미칠 2분기 호재들**
  -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이익 성장 기대. 특히 2분기 온라인 사용률 100%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청년몰' 사업 수주해 총 360억원 규모 수주 확보. 동사 평균 온라인 사용률 37%을 **감안하면 해당 '청년몰' 수주는 동사 거래액에 5% 이상 영향을 미치는 대형 수주.** 5월부터 일부 매출 발생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 실적 반영 시작. 한편 시장에서 기대 중인 대형 고객사 복지몰 수주는 늦어도 7월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700억원 규모로 예상
  - 동사 실적의 핵심은 인건비. 이외의 비용 증가 요인은 미미. 현대백화점그룹 피인수 이후 연봉 인상은 마무리되었고 신규 수주 위한 인력 충원은 작년 2분기까지 마무리. 직원수 2021년 말 325명에서 2022년 상반기 말 359명으로 크게 늘었으나 2023년 1분기 말에는 367명으로 증가폭 감소. 즉 **올해 상반기까지는 늘어난 인건비 영향 있겠으나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률 대폭 개선될 전망**

- **올해 PER 8.7배로 저평가 매력 보유. 하반기 주가 흐름 개선 기대**
  - 2023년 매출액 1,291억원(+14.8% y-y), 영업이익 218억원(+16.0% y-y)으로 예상되며 올해 예상 PER은 8.7배에 불과. 현대백화점그룹 피인수 이후 구조적 변화로 믹스 개선 지속. 가전 비중이 줄고 고마진율의 소비재(화장품, 패션, 가구 등) 매출이 늘어나고 있음. 하반기 주가 흐름 개선 기대

8년간 한번도 역성장하지 않은 영업이익률



자료: 현대이지웰,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 본 자료는 당사 공식 Coverage 기업의 자료가 아니며,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공식 투자의견,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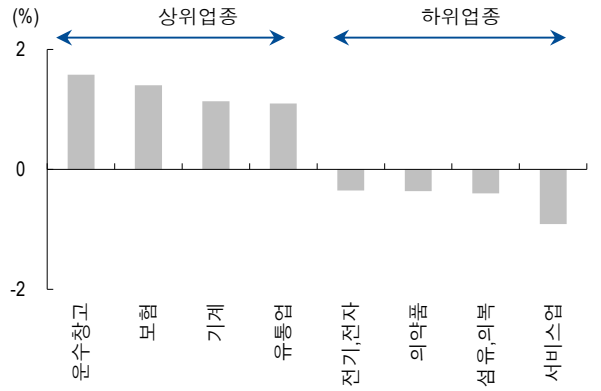
Domestic Market

Trading Summary		Index 8-Jun	7-Jun	5-Jun	2-Jun	1-Jun	Performance/Spread 1Day	1Week	1Month	1Year
거래소	주가지수(P,%)	2,610.85	2,615.60	2,615.41	2,601.36	2,569.17	-0.18	1.62	4.02	-0.58
	거래량(백만주)	581	538	546	570	675	44	7	-64	47
	거래대금(십억원)	11,474	10,153	8,566	9,384	9,169	1,321	1,964	2,329	3,054
코스닥	주가지수(P,%)	876.13	880.72	870.28	868.06	863.78	-0.52	1.43	4.82	0.13
	거래량(백만주)	1,123	1,094	1,050	1,112	982	30	44	-132	70
	거래대금(십억원)	9,008	8,890	6,970	7,616	7,203	118	1,272	418	1,230
투자자별순매수(순매도)										
거래소	외국인(십억원)	-383	-43	-23	380	1	-383	-69	3,550	17,381
	국내기관(십억원)	319	349	453	200	-385	319	1,320	750	-5,997
	개인(십억원)	66	-295	-435	-576	358	66	-1,239	-4,231	-12,947
코스닥	외국인(십억원)	-222	206	-23	-30	54	-222	-68	157	-2,582
	국내기관(십억원)	-22	53	10	99	-15	-22	140	522	-3,927
	개인(십억원)	250	-221	35	-36	-26	250	28	-469	9,326

주: 투자자별순매수의 Performance/Spread는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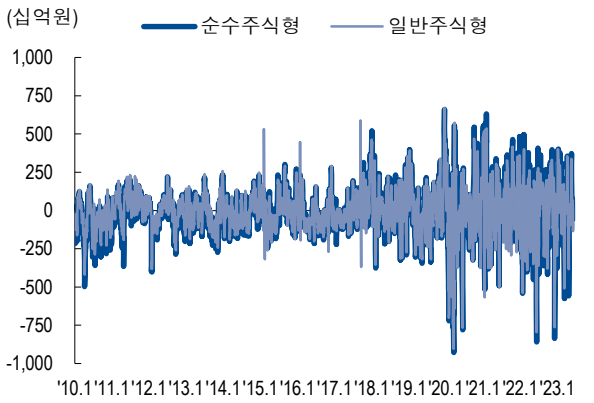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3년만기 국고채(%,%P)	3.54	3.47	3.50	3.44	3.48	0.07	0.06	0.29	0.33
3년만기 회사채(AA-)(%,%P)	4.34	4.27	4.31	4.24	4.29	0.07	0.06	0.28	0.36
콜금리(%,%P)	3.56	3.49	3.49	3.50	3.55	0.07	0.01	-0.10	2.00
시가총액(조원)	2,484	2,489	2,484	2,472	2,444	-4.95	39.82	102.85	31.64
원/달러 환율(원,%)	1,303.70	1,303.80	1,308.10	1,305.70	1,321.60	-0.01	-1.35	-1.53	3.98
원/100엔 환율(원,%)	928.63	937.28	934.02	951.75	950.01	-0.92	-2.25	-5.20	-1.94
증시주변자금									
고객예탁금(십억원)	-	50,785	50,027	50,380	52,735	-	-1,950	1,222	-6,733
미수금(십억원)	-	447	451	454	457	-	-10	-41	246
신용잔고(십억원)	-	18,529	18,533	18,466	18,441	-	87	-156	-2,992
순수주식형수익증권(십억원)	-	97,619	97,619	97,719	97,329	-	290	1,420	4,008

Daily Sector Performance



자료: KRX

Domestic Equity Fund Flow



자료: AMAK, Zero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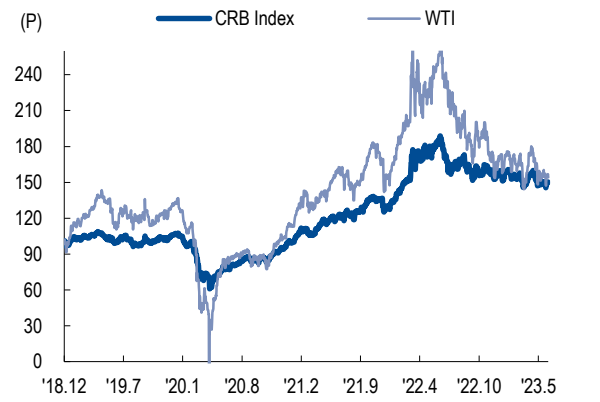
Global Market

해외주요증시		Index 8-Jun	7-Jun	6-Jun	5-Jun	2-Jun	Performance/Spread 1Day	1Week	1Month	1Year
미국	NASDAQ(P,%)	13,239	13,105	13,276	13,229	13,241	-0.29	1.05	8.01	9.76
	S&P500(P,%)	4,294	4,268	4,284	4,274	4,282	0.24	1.73	3.77	4.19
	Dow Jones(P,%)	33,834	33,665	33,573	33,563	33,763	0.78	2.34	0.64	2.79
유럽	영국(P,%)	7,600	7,624	7,628	7,600	7,607	-0.37	1.46	-2.30	-0.11
	독일(P,%)	15,990	15,961	15,992	15,964	16,051	-0.02	0.86	0.23	9.12
아시아	일본(P,%)	31,641	31,914	32,507	32,217	31,524	-2.66	1.58	9.30	13.35
	대만(P,%)	16,734	16,922	16,762	16,714	16,707	-0.17	1.34	6.59	0.77
	중국(P,%)	6,540	6,541	6,480	6,464	6,428	0.93	6.35	-5.19	-12.80
	인도(P,%)	62,849	63,143	62,793	62,787	62,547	0.09	0.67	1.76	12.88
라틴	멕시코(P,%)	54,338	54,291	54,432	53,536	53,233	-0.17	3.06	-1.26	8.52
	브라질(P,%)	115,488	115,488	114,610	112,696	112,558	0.77	4.45	8.91	4.81
국제금리 및 환율										
금리	미국채 10년(%,%P)	3.72	3.80	3.66	3.68	3.69	0.06	0.12	0.21	0.68
	스프레드(10년-2년) (%,%P)	-0.80	-0.76	-0.82	-0.78	-0.81	0.02	-0.05	-0.30	-1.11
환율	엔/달러(엔,%)	139.79	139.38	139.44	140.28	139.92	0.25	0.18	3.53	7.00
	달러/유로(달러,%)	1.07	1.07	1.07	1.07	1.07	0.30	0.20	-2.88	0.02
국제 원자재 가격										
	CRB Index(P,%)	262	261	261	260	260	0.63	1.92	-0.64	-19.74
	WTI ($/Barrel,%)	71	73	72	72	72	-0.63	1.70	-2.56	-39.84
	Gold ($/Troy Ounce,%)	1,947	1,963	1,964	1,944	1,948	-0.86	-1.01	-3.83	5.06
	구리($/Metric ton,%)	8,294	8,294	8,339	8,335	8,237	-0.55	0.61	-3.36	-14.89

Global Company Performance	1Week (%,%P) 해외	국내	Gap	1Month (%,%P) 해외	국내	Gap	PER (배) 해외	국내
Intel/삼성전자	2.22	0.00	2.22	3.41	7.59	-4.17	16.32	8.80
Micron Technology/SK하이닉스	-5.46	-0.54	-4.91	7.31	23.68	-16.36	8.36	33.84
Philips/LG전자	2.09	3.01	-0.91	-0.52	12.82	-13.34	-	19.08
NTT Docomo/SK텔레콤	0.00	0.51	-0.51	0.00	1.96	-1.96	11.66	12.02
Google/NAVER	-1.37	-1.72	0.35	13.33	-3.14	16.47	26.61	40.04
Toyota/현대차	4.17	-0.41	4.57	9.05	-2.86	11.92	11.28	6.90
Nippon Steel/POSCO	3.41	7.48	-4.07	-2.95	5.58	-8.52	3.78	9.36
Exxon Mobil/SK이노베이션	4.67	0.00	4.67	-0.84	0.00	-0.84	8.16	11.07
Singapore Airlines/대한항공	6.06	2.29	3.77	19.25	-2.41	21.66	19.66	4.66
Mitsubishi Heavy/현대중공업	9.38	8.25	1.13	24.60	24.85	-0.26	16.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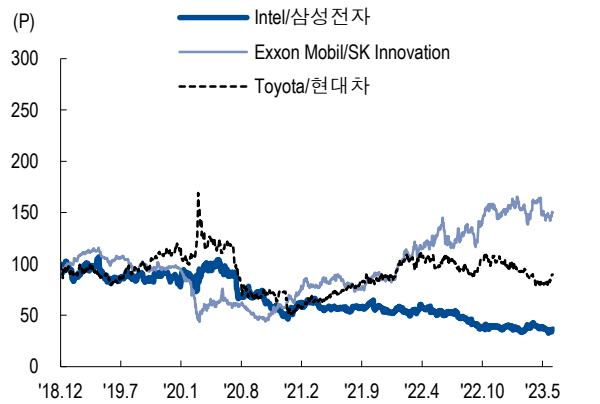
주: 해외=해외주식의 수익률, 국내=국내주식의 수익률, Gap=해외와 국내주식의 수익률의 차

Global Commodities Price Trend



자료: Bloomberg, Dramexchange

Global Company Relative Performance



자료: Bloomberg

〈종목 투자등급 (Stock Ratings)〉

- 투자등급(Ratings): 목표주가 제시일 현재가 기준으로 향후 12개월간 종목의 목표수익률에 따라 Buy(15%초과), Hold(-15%~15%), Sell(-15%미만)로 구분

- 본 조사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